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욱기
· 시편

구역예배 ·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읍기
· 시편
구역예배 ·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주의 성실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애 3:19-26)

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노래하던 예레미야! 그의 소망이 2001년의 첫 달을 맞이하는 우리네 가슴에 흘러 넘치길 기도해 봅니다.

지난 한 해의 고초와 낙심의 그늘이 거두어지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푸르른 계절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길!

그리하여 여전히 자비하신 주의 은혜와 참된 쉼. 그리고 안식의 날개 아래에서 그가 베푸신 거룩한 옷이 덧입혀지길!

2001년 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욥기서 서론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고 하기 전에, 욥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불의함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누가 천상(天上)에서 벌어지는 마귀의 음모를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그래서 인생은 연약하고 깨어질 질그릇이며, 한없이 미련하고 가엾기만 한 것 아닌가! 인간의 지혜는 덧없고 티끌만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그가 베푸시는 은혜뿐인 것일!

하룻밤 사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상실한 욥기의 시작은 네 명의 친구들과의 결코 끝나지 않을 변론으로 이어져간다. 변영은 의의 표징이며, 불행은 죄의 대가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의 지혜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욥의 고난을 더 큰 혼동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전개되고,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 처음부터 욥의 고난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수많은 변론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에 대한 논지뿐이다.

주요내용

1장-3장: 시험과 고통의 시작

욥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

4장-7장: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변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너는 죄를 범했다. 나는 결백하니, 하나님이며 나를 놓으소서

8장-10장: 빌닷과 욥의 첫 번째 변론

오직 죄인만이 고난을 받는다

죄인도 결백한 자도 고난받으며,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11장-14장: 소발과 욥의 첫 번째 변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는 범죄했다

하나님은 크시며, 너의 의견은 의미가 없고, 나는 슬프고 괴롭다

15장-17장: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변론

너는 위선자다

하나님은 가혹하시며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

18장-19장: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변론

너는 잘못했으며, 악한 자는 함정에 빠지는 법이다

너는 보잘 것 없으며,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20장-21장: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변론

너의 주장은 답답하며, 내 주장은 너를 괴롭게 한다

네 귀를 열고, 네 눈을 열며, 네 마음을 열어서라

22장-24장: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변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나의 심판자와 정의가 어디 있는가?

25장-28장: 빌닷과 욥의 세 번째 변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공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

29장-31장: 소발과 욥의 세 번째 변론

소발의 침묵

욥의 과거와 현재의 회상, 고난과 욥의 경건

32장-37장: 욥에 대한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

너의 고난은 교만때문이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주관하신다

38장-39장: 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이 땅의 모든 이치를 내가 알며, 동물들의 세계를 모두 아느냐?

40장-42장: 욥의 답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예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앞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변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의 변성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욥 24:12)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나 현실적인 고난과 불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지혜와 능력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은 멸한다는 강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5:18-25).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욥뿐만 아니라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는 인간 현존의 많은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욥과 세 친구간의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징조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난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빌 4:6-7).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을 보이십니다(렘33:3).

고난은 축복을 위한 징조입니다. 고난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든 죄악이 반드시 죄악의 결과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세상에서 악인이 더 흥왕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욥의 항변에 대해(24장) 빌닷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지적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은 그 자체로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2-3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4-6절).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빌닷은 모든 인간을 벌레, 혹은 구더기라고 말함으로써 죄인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되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죄악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은혜의 방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으로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김창인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빌 닳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들어 욥을 공박하였습니다(25장). 이에 대하여 욥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능력과 성품을 빌닷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5-14). 욥은 빌닷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지식 자량의 수단으로 삼은 것(3절)을 꾸짖고, 나아가 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14).

욥의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지옥과 하늘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5-7절). 구름과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8-10절). 산과 바다와 성좌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11-13절).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겸손한 인정과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비천한 인간이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달으며 세밀하신 섭리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할 지라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밀하시고 선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세밀하고 선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처럼 친구들의 변론이 결코 올바른 권면이 아닌 허탄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게 됩니다(1-1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피력합니다(13-23). 또한 욥은 사악한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진술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겪는 고통과 인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악인의 득세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 현재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의하고 모순되며, 선과 악이 혼재하는 듯한 혼란스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비를 이기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시103).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② 충현교회기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섭리) 안에서 찾았습니다.

욥은 참 지혜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고대 보화를 채굴하는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석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석을 소유했던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세상 보석의 귀중함보다 더욱 귀중한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금을 캐듯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1-11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12-19절).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20-28).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보물은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핵심이요, 축복입니다.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장에 이어서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형통했었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욥은 친구들의 책망을 미리 막고 있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그는 그가 형통했던 날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큰 즐거움과 만족함으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1-6). 그리고 그는 큰 영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7-10). 사람들은 욥을 축복하고 좋아했으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욥은 정의롭게 많은 선을 행하였다고 추억합니다(11-17). 그러므로 욥은 그의 집안이 계속하여 편안할 것을 기대했습니다(18-20). 또 다른 사람들도부터도 여전히 신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21-25). 욥은 이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하면서 “내가 풍족히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한 나옴이처럼 그의 현재의 재난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으며, 공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던 것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추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욥처럼 부귀 영화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는 모습을 추억하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하루를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먼 훗날,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날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로서 시작되는 이 장은 우울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앞 장에서 형통함이 생활 전반에 넘쳤던 것처럼, 여기서는 곤경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의 과거의 형통이 현재의 고난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은 매우 영예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굴욕 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전에 가장 위대한 자로부터 존대를 받았던 그가 이제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1-14). 과거의 욥은 내적인 위로와 기쁨이 충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에게 임하였고(15, 16), 슬픔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28-31). 욥은 오랫동안 건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17-19, 29, 30).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의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20-22). 욥은 그 자신에게 오랜 생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문 앞에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23). 욥에게 모든 것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듯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위로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이 무덤까지 그를 따라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24). 그리고 그가 형통할 때에 불쌍한 자들을 동정했다고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25).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양심의 증거는 병상을 편안하게 합니다(시 41:1, 3)

고난 당할 때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08.01.2018

10.01.2018

10.01.2018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 그 타는 가슴은 무엇으로도 시원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주 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상세한 예를 들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하여 공정하고 필요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해명을 위해서 욥은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는 무서운 저주로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 땅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견고히 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적인 야비한 범죄들로부터 결백할 뿐 아니라, 만일 그가 범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많은 은밀한 죄로부터도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결코 사곡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백을 주장하는 죄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음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1-4). 사기와 불의로 거래하지 않았음(4-8), 음행하지 않았음(9-12). 그의 종들에게 거만하거나 냉혹하지 않았음(13-15).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무자비하지 않았음(16-23)입니다.

저주로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자신이 결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추한 나를 가리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욥은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가 악을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그의 의와 사랑의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과 덕의 귀한 본보기를 견고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할 수 있다면 욥처럼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가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재물을 의지하여 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24-25). 무엇보다도 욥은 우상숭배로부터 결백을 주장합니다(26-28). 그리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초라한 나그네를 멸시하지 않았습다(29-32).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해 주면서 그 자신의 죄와 비겁함을 숨기려는 사곡함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말하며(33-34).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압제하고 강제로 착취하지 않았음을 강변합니다(38-40).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결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35-37).

이만하면 그는 그의 결백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백하다고 말씀하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 4:4)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백을 판단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성도(聖徒)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보통은 젊은이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노인들은 중재자가 되는데 욥기는 오히려 노인들의 논쟁에 젊은이가 중재자가 되어 활책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좌정해 있었으나 욥도 친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재자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행위였는데 그 중재자는 젊은 엘리후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엘리후의 가계와 이 논쟁에 그가 참여하게 된 것 및 이 논쟁에 대한 그의 소감을 기록합니다(1-5).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노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한 인간의 오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6-10). 엘리후는 그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다 들었으며(11-13), 자기가 진술할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4-17). 그의 마음은 이 문제로 가득 차서 그것을 토로해야만 심신이 상쾌할 것 같아서(18-20) 공평무사하게 말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21, 22). 일종의 자기 주장에 앞선 서론이 본 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잘 말하였기 때문에 욥은 그에게 말대답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욥과 다른 세 친구들에게는 꾸중을 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 만은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 같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 됩니다(잠 25:11-12).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의 지혜를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로 더욱 화기 애
 애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물 없는 사막과 같아
 집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를 하려
 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엘리후도 욥의 마음을 열어서 대화의 상
 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대화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1절). 대화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상대방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즐겁게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원칙입
 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들이 진리를 얻습니다. 둘째
 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3절). 대화의 기본 예의는 말의 진실성에 있습
 니다. 진실이 없다면 사기에 불과합니다. 대화에서 내가 속았다는 생각
 이 들 때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화 하고 싶은 용기와 마
 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는 그 당시는 불쾌하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와 사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대등한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6-7절).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대등하게 존경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
 세를 가지고 시작 해야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거나 무시하는 처
 사는 나쁜 감정을 유발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진실한
 대화를 합시다.

진실한 대화를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내 입술에 정함을 주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
 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
 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고 인간들처럼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21)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움직이는 행동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서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숨길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의로써 처리하십니다.(23-25) 하나님은 재판을 하실 때에 증인이나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째, 항의할 수 없게 하십니다.(29-30)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인간들은 그 앞에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백성들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 나님께서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2-3절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 해 보고 반성해야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11). 우리는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 해야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행함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시 42:8).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12).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헛되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같은 분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외식하거나 세상 것을 구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나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 나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본문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둘째, 의인은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그 고난의 대가로 위로와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상입니다.

세째, 회개하는 자를 형통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을 청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망함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하여 하늘의 복을 박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며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한글서체 1000자본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과 설교와 자연과 우주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 우레로 인간을 두렵게 하십니다(2-3).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천하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3).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레소리나 자연의 소리로 통하여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째, 하나님의 소리는 위엄 있는 소리입니다(4).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초월적인 권능과 위대하신 엄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엄위를 나타내시려고 번갯불을 동시에 보이십니다. 불과 동시에 소리가 나면 더욱 그 위엄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시 68:33)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고 그 엄위에 감복되어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에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날처럼 배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기술 만능주의 사회에서 기능과 기술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왜 배워야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은 현실적인 필요에 잠식당해 버린 것입니다.

욥의 질문을 한 음절로 말한다면 “왜”일 것입니다.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답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3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로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물음에도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2절). 인생은 아주 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지 그분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광명의 처소(19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 뿐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요 9장)

전지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 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 명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밀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가되면 우유도 주고 또 육아 공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장 아장 기어다니기라도 하면 온갖 신경은 다 써야 합니다.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오랜 시간의 정성으로 한 명의 아기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명의 아기를 키우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38:41) 산염소, 암사슴의 새끼 낳는 것도 돌아 보시고(14절) 들나귀(5절)와 들소(9절), 타조(13절 이하)며 말(19절)이며 공중의 메와 독수리(26절 이하)의 삶도 주님의 섭리 하에 이루어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행27:34)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카락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기 39장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돌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질문하며 염려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의 방법을 산과술이라고 합니다. 마치 산과가 산모를 잘 다뤄서 아기가 무사히 출산되도록 하듯이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새로이 출발하도록 하는 철학 방법입니다.

참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광명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11,12절). 따라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8절)이 구원얻기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4절) 그러나 우리 본성은 우리의 미천함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눅 9:23) 자신의 자존심도 없애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려있는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라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결코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있는 것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전혀 없는 것에서의 창조, 무에서의 창조(ex nihilo)인 것입니다. 41장에서 나오는 악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11절).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무에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악어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아울러 직접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서 본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남이 보는 것은 못 보는 것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이라는 루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주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단지 듣기만 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았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첫째 모든 것이 다 주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과 둘째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과 셋째,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회개하고 있습니다(6절).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치 욥을 기쁘게 받으셨듯이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된 축복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욥의 결과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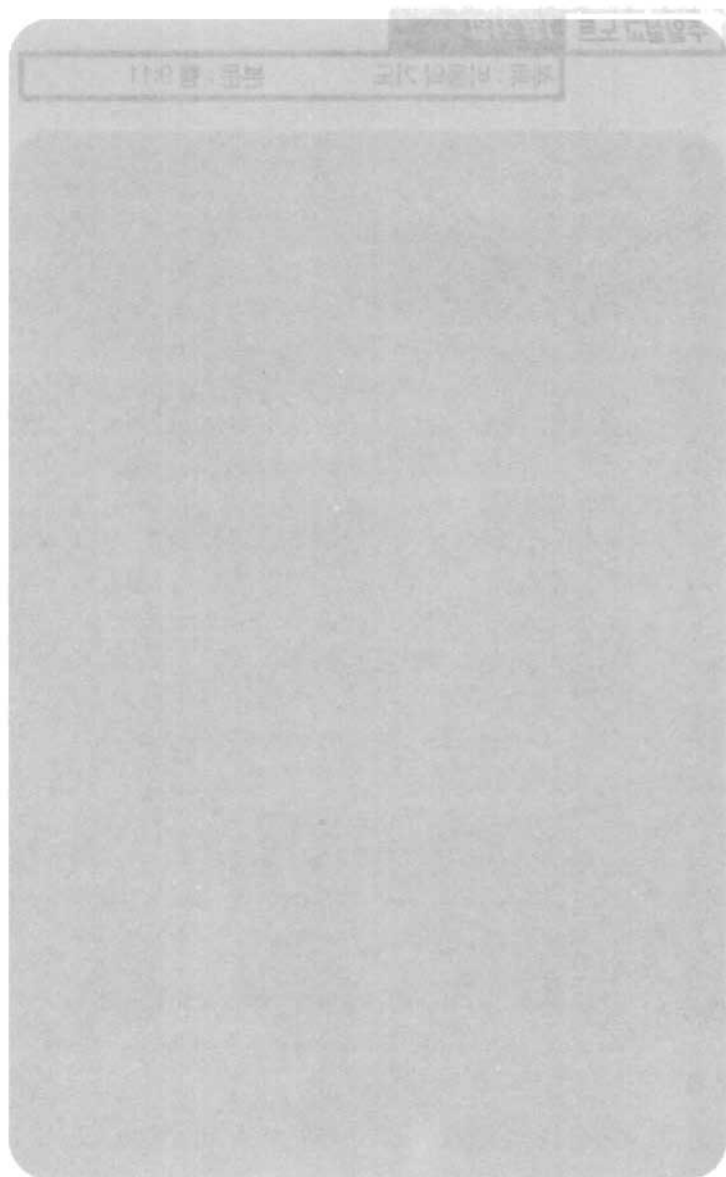
오늘 본문은 시편의 서론이며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세상은 재물이나 권력, 건강이나 학식과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보는 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죄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먼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1, 2절).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3-6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악한 삶을 살지 않으며 성경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변함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점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1-3절). 이들의 교만함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욱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4절). 왜냐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무지함과 악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십니다(9절).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6절). 그리고 왕 되신 주님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13절). 나아가 주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12절).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리석은 현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② 권영일 단기선교사(수단)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 꾀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영웅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 그는 지
금 매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1, 2
절) 참으로 실족하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
황 가운데 빠져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4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시며 또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
기 때문입니다(3, 4절).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
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산성이시요 힘이십니다. 다윗은 기도
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
었습니다. 기도 후 그는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
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6절). 그러곤 완전한 회복의 삶을 위하여 더욱
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7, 8절). 이것이 바로 고
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꾀박이 있습니까? 주위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 힘과 은혜를 얻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고난을 이깁니다.

기도 제목 / ①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② 성
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
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부 유함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 부유함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멸시와 조롱, 곤란과 핍박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와 꾀술을 좋아하는 그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2절). 이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7절). 바로 자신들의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 그는 먼저 저들의 도전에 대해 의(義)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1절).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8절). 그리곤 새 힘을 얻어 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함이 아니라 경건을 따라 택하는 분이심을, 따라서 교만함으로 범죄치 말며 겸손함으로 나아가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3-5절).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들의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므로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6-8절). 우리 주위에는 이런 성도들이 없습니까? 낙망하지 말고 의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기 있게 세상의 부유함으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이기는 능력은 의(義)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② 추진회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간사함과 속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시편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역시 지금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은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매우 악하며 아침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9절). 다윗은 먼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1-3절).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음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뢰(依賴)하는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분인 것을 고백(4-6절)하고 연이어 자신을 괴롭히는 저들을 판단하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10절). 반면 자신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며 저들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곧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7, 8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11, 12절).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며 간구합시다.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성도의 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② 평신도 선교사들(일본의 유병석, 리비아의 이병석)과 협력선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한 것과 그의 아내 밋세바와 간음한 것(삼하 11:1-12:25)에 대하여 얼굴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며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2-3절).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죄는,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을 초래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롬6:23).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살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범죄함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참회하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함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의지할 존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처량하여 삶의 힘을 잃어 버립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도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삼상24:9-11).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닙니다. 이럴 때에 사울왕의 측근 중의 베나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모함을 합니다. 다윗이 구시의 모함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그가 패썹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구시 쫓은 간단히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급하게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고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되면 힘이 없어서 문제지 힘만 있다면 당장에 칼을 뽑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태한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위험에 대처합니다. 그러다가 안되면 다른 사람 혹은 미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아 갔습니까?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전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들은 우주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유의 주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다윗은 불레셋의 명장 거인 골리앗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 주의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2절).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조건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삼라만상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한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6-8절).

우리가 눈이 있어도 욕심 때문에 소경이 되고, 귀가 있어도 고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놀라우신 영광이, 그리고 그의 솜씨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마음과 새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역울한 일을 기억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죽 열거합니다(3-12).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넘어서 망하게 하시며 자신의 의로움과 송사를 변호하시며 의롭게 심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과 그의 성읍을 멸하시며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환난때의 산성이 되시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집니다(13-18).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고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욕심으로 가득하여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교만한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을 살다보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의 길이 형통한 반면 오히려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 힘겹게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본문 속의 시인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원수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11절). 본문 속에서 시인은 악인이 득세하여 세상을 주무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만으로 가득차 있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2-3절).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며(4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11, 13절).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14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15, 18절).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12, 17절). 본문 속의 시인은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거리를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저들의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원수가 나를 조롱하여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남복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당신은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게 피합니까?
 ○ 인간의 방법으로 힘있는 자를 찾아가거나 돈으로, 거짓말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시 46:1-3).

본문 속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새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만 그는 이미 의인을 감찰하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삼고 계시면서 인생을 통족하시며 감찰하고 계시며, 특별히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한 자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신다고 고백합니다(4-6절).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잘못 피함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를 원수들로부터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시 17:7-9).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0: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 제목 / ① 주여! 종의 마음에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주옵소서. ② 1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2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성도란? (1)

찬송 / 39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들어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도(聖徒)'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 하고 말입니다. 아마 “김집사님!” “이권사님!” “박장로님!”과 같이 직분이 없어서 부르기 곤란한 탓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단어에는 매우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깊이 있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머무르면서

이제 주어진 구절들을 통해 성도에 대한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각 구절 속에 나타난 성도에 대한 표현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ex '세상의 소금'). 그리고 그 표현과 연관된 질문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마 5:13,14 -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②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2. 막 8:34 - "제자"

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② 앞에서 말한 제자의 정의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3. 요 1:12,13 - "하나님의 자녀"

① 12절에 의하며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②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난 자들입니까?

4. 롬 8:17 -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① 위의 구절에서 말하는 ‘후사’란 어떤 뜻입니까?

②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오면서

지금까지 성도에 대해 함께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바로 알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신 성도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고,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느낌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거나 건너뛰는 일이 없이 모두 간략하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2 과

성도란? (2)

찬송 /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들어가면서

지난 주에 배우셨던 성도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인도자의 '시작' 과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성도의 정의를 외워보도록 하십시오. 다 외우셨으면 오늘도 '성도' 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에 대한 정의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대해 공부하실 때, 결코 이론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이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무르면서

지난 주에 계속해서 주어진 구절들을 통해 성도에 대한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각 구절 속에 나타난 성도에 대한 표현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현과 연관된 질문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전 7:22 - "그리스도의 종"

- ① 본문에서 말하는 '종' 의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 ② '주께 속한 자유인' 과 '그리스도의 종' 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고후 2:15 - "그리스도의 향기"

- 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 ②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된 '성도' 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일까요?

3. 고후 3:3 - "그리스도의 편지"

- ① 본문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②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라고 부를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4. 고후 5:17 - "새로운 피조물"

- ① '성도' 를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 ② '새로운 피조물'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나오면서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성도의 정의' 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난주와 오늘 배운 성도의 정의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배우셨던 성도의 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잠시 생각을 정리하시고, 돌아가면서 떠오른 느낌들을 간략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한 분이 일방적이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 3 과

성도란? (3)

찬송 /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들어가면서

오늘은 ‘성도의 정의’에 대해 마지막으로 배우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배우셨던 성도의 정의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인도자의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다 함께 소리내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외우지 못해!” 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천년이 지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못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머무르면서

우리의 신분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1. 고후 6:4 - "하나님의 일꾼"

① 고후 6:1 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②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와 각오를 말해보십시오.

2. 엡 2:19 - "하나님의 권속"

①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 이라고 표현했는데, "권속"이란 무슨 뜻입니까?

② 21절과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3. 딤후 2:3 -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라고 했는데, '좋은 군사'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②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사로운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리스도와 고난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4. 벰전 2:9 -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① 본문에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②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5. 벰전 2:11 -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

① 본문에 묘사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 들인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② '나그네' 로써 버려야 할 '육체의 정욕' 은 실제로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도의 정의와 관련해서 성도의 의무에 대해 배우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배우신 성도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우신 내용들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돌아가시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성도의 삶

찬송 /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들어가면서

지난 3주 동안 ‘성도의 정의’에 대해 배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 함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의만은 철저하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성도에 대한 정의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암송하신 분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무르면서

성도에 대한 사용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답니다. 성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가장 깊은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에베소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성도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엡 1:1 -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 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 ②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수신자를 쓸까요?
- ③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 역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일인지 마태복음 18:20을 읽으시고 말해보십시오.
- ④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 모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엡 4:12 - “성도를 온전케”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① 본문에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② 만일 성도들에게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순서가 잘 지켜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동일한 성도로써 변화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3. 앞 문제에서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온전케 되는 일’ 인
데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①엡 1:18 -

②엡 3:18 -

③엡 5:3 -

④엡 6:18 -

4. 엡 4:11 - “그가 ... 주셨으니”

①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순서를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②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의해 변화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임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총현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들은 말씀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심입니까?

나오면서

벌써 2001년의 한 해가 다 저물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성도'에 대하여 배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로 묘사된 천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한 신분에 맞게 살 것에 대한 헌신도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달 동안에 배웠던 성도에 대하여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빈 종이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

성을 지금까지 배우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써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쓰신 후, 함께 손을 잡고 성도를 왕 같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 자신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在地上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기도합니다.

마침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在地上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 자신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在地上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기도합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9 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찬 송 / 168장

읽을 말씀 / 고전 15:42-44

외울 말씀 / 고전 15:58

부활의 소망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고전15: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고전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갈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 바울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고
전 15:42-44)

2. 부활의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
게 열려져 있는 기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
다.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
6:7-8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에 대
해서 요한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요 12:24)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고전15: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

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전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전15: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거

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전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께 감사하노니

(고전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이니라

4.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고전 15:32)

5.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고전 15:34, 고전 15:58)

-
6.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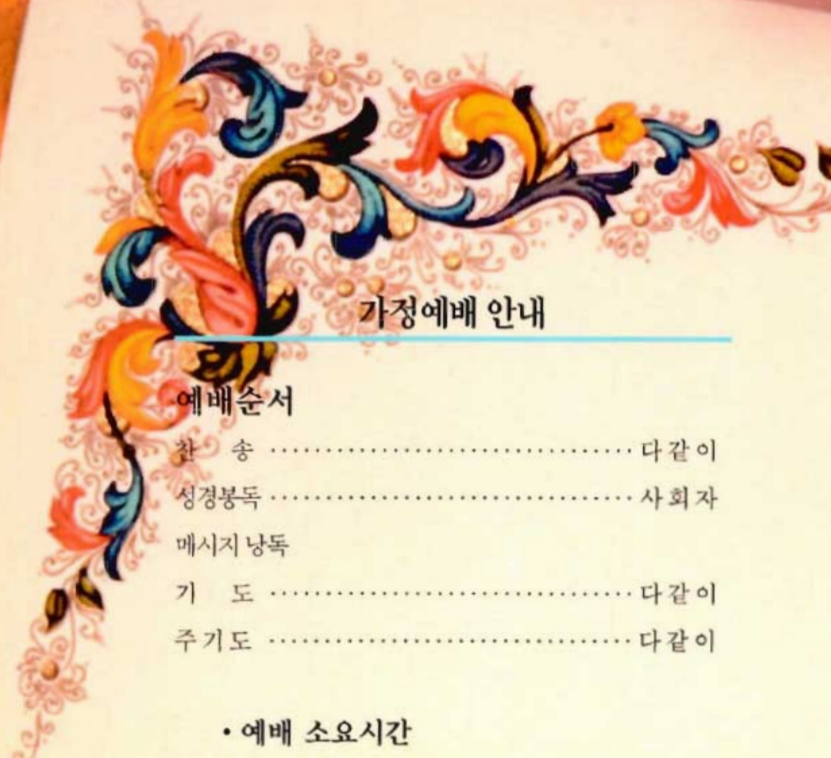
MEMO

MEMO

MEMO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여상기, 류병희, 노경록,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판매품]
